

◎ Function of the Library for the Theological Education.

## 神學教育을 위한 圖書館의 役割

—神學圖書館 運營의 科學化—

金 昌 宜

(長老會總會神學大學圖書館 司書長)

### 序 論

교육의 삼대요소는 교육자,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내용을 들 수 있다. 즉 첫째의 교육자는 교수진이요, 둘째는 교육받을 학생이요, 셋째는 강의 및 연구에 동원되는 교재의 일체이다.

실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은 그의 가치관이나, 기능에 있어서 다대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월터 바렛드씨는 「대학의 심장은 도서관이요, 도서관의 심장은 회귀본이다.」라고 했으며 하바드 대학교의 「Shakerper」 연구로 유명한 조지 키텔레지 교수로 「비록 하바드의 다른 건물이 모두 파괴되더라도 「위드너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 대학교는 그 면모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바있다.

한편 우리 신학도서관계는 마치 「독자없는 책」과 같이 의롭게 도사린 초라한 모습으로 「학원내의 소외시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文化創造의 保庫의 圖書館이나 利用者에 편의를 주기위해 書誌作業을 하며 參考 擔任하는 司書(도서관인)는 많은 고충을 갖고있다. 특히 인색한 도서관 예산, 자료의 빈곤, 시설의 불충분, 전문인의 부족, 주먹구구식의 도서관 운영등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브비보셋」과 같이 신학교육은 불안정한 「절름다리 교육」이 되지 않는가 염려되는 바이다.

이에 필자는 수년간 헌직에 봉사하면서 느낀 소견이나마 몇가지를 놓고 「신학도서관의 과학화」를 언급하므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 I. 國內外 圖書館界의 動向

급증하는 문화발에는 학문의 세분화가 따르고 지식의 계발에는 다량의 문화예술품을 남기게 마련이다. 날로 축적되는 문헌들은 출판과 연구의 증진으로 자료의 분류, 정리등 체계있는 조직적인 배열이 필요하다. 이럴수록 도서관의 사명은 중차대 해지며 업무량은 증대하여 「지식의 폭발시대」는 「정보의 홍수시대」로 돌입

되었음은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르는 국내의 도서관계의 움직임을 대략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① 직접적 도서관 진흥운동 ② 간접적 도서관 사명확대 ③ 자주학습에 관한 도서관의 접근점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④ 신학도서관의 동향을 결드려 약술함에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한해(1972년)만 보드래도 학계의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도서의 해」로 정하고 「책은 만인의 것」이라는 스로간 아래 갖가지 운동을 벌였으며, 5월에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의 역사」라는 도서전시회에서 「직지심경의 세계적 공인」으로서 한국의 출판문화 도서관계는 잃었던 탕자의 기쁨을 얻은 느낌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제11차 전국 도서관대회(대구 계명대학)를 갖고 「도서관 봉사의 기계화」가 주로 논의 되었다는 점에서 정보시대를 맞이하는 이시대에 꼭 취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었다.

국내외적으로 1950년대는 기계화시대(Mechanization), 1960년대는 자동화시대(Automation), 1970년대는 통합된 도서관 자동화시대(Integrated Library Automation)에 적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적 도서관 사명확대로는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교육추세는 대학의 개혁론, 교육환경론 대학의 자주성 혹은 대학의 사신론등이 잇수로 야기됨에 따라 도서관의 진흥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의 한 예로서 서울대학교의 10개년 종합교육계획안(1971. 10. 11)의 5항목중 한 항목이 「도서관은 교육지원의 핵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하고 개혁한다」로 성안되었고, 연세대학교의 15년 장기계획안(1972)에는 5개안중에 「학문의 증추는 도서관이므로 도서관을 신축하고 완전 개가식 도서관의 60만권 이상의 장서를 갖춘 학문의 전당으로 개혁한다」로 전망을 펴고 있다.

자주학습에 관한 도서관의 접근점으로는 이화여대 사범대학의 교육평가에 관한 세미나가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 결론은 종래의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시험위주의 평가기준을 배제하고,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조사연구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여 그들의 성장도를 평가하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일들은 수동적이며, 주입식 강의 위주와 기억을 위주하는 시험의 비교육적 불합리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겠다.

지난번 서울대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위원회의 한 보고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양과정의 주된 교육방법은 필기 31% 강의 63%, 질의 토의는 4%에 불과하고 50%의 학생이 교수방법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전공과정에 있어서도 개선의 필요한 면이 교수방법으로 46%나 되었으며 수업에 있어서 과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학생이 62%나 된점으로 보아 도서관에 연관된 여러가지 업무가 따려야 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神學圖書館의 動向

필자는 3가지 출간된 저서의 집필로 자료 관계상 시내의 군소 신학교 도서관을 방문하는 기회가 몇차례 있었다.

보이는 도서관과 맞나는 실무자마다 비슷한 의견이 있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도서관의 단합이 필요함을 알았다. 더욱이 지난 여름(6월 1일)에는 미국 남침례회신학교 도서관장인 Cresmon박사의 은퇴 후 내방에 즈음하여 침례교 신학교와 KAAT(전국 신학대학 협의회) 주선으로 신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를 대전에 침례회 신학도서관에서 갖으므로 더욱 의견 단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때 신학도서관 협의회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후에 5차례나 준비 모임을 가져 KATT의 후원아래 “한국 신학도서관 협의회”가 창립 발족되었다. 즉 지난 4월 16일 감신 선교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2차 신학도서관 대회를 열어 20개 신학도서관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의 등 프로그램을 가진 후 정식으로 창립되었으며, 일차적으로 신학도서관의 분류법 통일안과 도서관의 상호대차(Library Loan)를 위한 종합목록을 출판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II. 神學圖書館의 歷史的 意義

“먼저된 자가 나중 된 교훈” 이 문제는 도서관 발전의 내력을 이야기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학도서관」의 의미를 두둔할 것이다.

기원전 660년대의 앗시리아 앗수루바니필(Ashurbanipal) 도서관이나, 알렉산드리아의 팔-포 도서관등이 없는것은 아니드라도 무엇보다도 도서관 발전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흥을 보인것은 기독교의 신학계 도서관에서 뚜렷한 성장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즉 도

서관은 대학사 이전에 성장하였으며, 교회사와 더불어 발전하였고, 전적으로 기독교의 토양위에서 건립 진흥되었다고 할수있다.

테오도리쿠스 대왕의 비서였던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를 통해 비바리움(Vivarium)에서 「신학 및 세속문헌 총람」이라는 처음의 백과사전(Institutiones divinarium et Saecularium Litterarium)을 편찬하였으며, 영국의 석학이며 투올(Tours)의 수도원장이던 알퀸(Alcuin of york; 750년대)은 메트릭칼 카타로그(Metrical Catalogue; 음율이 붙은 분류법일례 한 예로는 오늘날 성경 66권을 외우기 위해서 노래로 부르는 식)로서 분류법의 시초를 만들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아니라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의 예를 본다면, 관의대출시 수령증과 그에 상당한 예치금이 요구되었으며, 12세기에 도서관 직무지침(Instructio officialium)이 마련되어 도서관의 분류, 목록, 서가배열, 1년 1회의 도서 점검등이 수도원장(앙베르 드 로마니)의 입회하에 실시된 일, 스튜디오 수도원에서 설치된 모범적인 서예학교(A model School of Calligraphy) 참고도서와 대출용 도서를 구분하는 시초도 10세기경 수도원 도서관에서 책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게 쇠사슬로 매달아 보존하던 “쇠사슬로 맨 도서(Chained books)제도에서 나왔으며, 신학대학이 중심이 되었던 대학초기 파리대학 도서관에서 “이단적인 도서와 대출을 금지된 도서는 교수에 한하여만 허용되던 「도서대출 제한 제도」를 선보이게 되었으며, 「찾아보기」라고 하는 索引(=일본에서 부르는 시초, 중국에서는 20세기 초에 Index의 음역인 引得으로 부름)도 기독교에서 착안된 것이다.

1230년경 유고 추기경(Hugo de Santocaro)은 벌 겐경 콜론단스(Concordances of the Vulgate)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작업을 위해 300~500여명의 수도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즉 “성경의 몇구절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성구사전” 책에서 나오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생활 방법중에 매일 필요한 필수품을 사기위해 왕래하는 「상점」이라는 스토어(Stor)도 15세기 독일등지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당근처에 로점(Stall=Open Stall)을 열어 판매하게 되고, 베넬란드와 북부독일 에서는 “공동생활형제단”(Brothers of Common life)이 조직되었는데 지금의 문선선교단체의 시원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즉 이들은 고문서의 필사본이던가 「찬송가집」, 학술도서등 많은 신앙관계 서적을 제작, 판매하는 유명한 단체이었다.

더욱이 파리대학 근처에서는 도서관매 없이 번성하여 「stationarii」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상인과 구별되는 것으로, 영어로는 Stationar=움직이지 않는다는 뜻과 같으며, Standing Shop(고정된 상점)과 통하고 라틴어의 Statio는 일반적으로 Shop(상점)으로 되어 상점, 전방들은 생활 필수품전에 「도서」를 빌려주는 대본업에서 부터 시작하여 「서점」으로 되고, 지금은 일반상품을 공급하는 「Shop」 혹은 「Stor」로 발전된 것이다.

1876년 사전체 분류법(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를 창안한 카타(Charles Ammi Cutter; 1840년대)는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교육받고 그곳에서 도서관에 봉직하게 된 바 있으며 마침내는 세계도서관지도자가 되었다. 이 이외에 유명한 크리찬 사서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Select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Librarianship; L.L.A.).

국내에서는 기독교 전래당시(1880년대) 이후 선교단체에서 한국 신교육의 선봉이 되었고 출판문화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세운 공로등 이곳에서 구지 재논할 필요는 없는 것인 줄 안다.

III. 藏書와 收書계획의 科學化

장서라 함은 중국 明代의 李贄撰의 全 66권으로 戰國時代부터 元代에 이르기까지 事跡으로 紀傳體의 저작으로 선자가 이책을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藏書라고 불린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상범으로 취급되어 이찬의 선서가 당시로 보면 내용이 불손하기 때문에 처형되었으나 문자 그대로 秘密히 감추어 두겠다는 뜻에서 書名했지만 일반적으로 책을 모아둔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도서관의 장서」를 우리나라와, 아세아의 인근지역, 미국 등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표 1. 국내 신학대학 도서관 장서 현황(1972년 말)

(편의상 11개 신학대학만 취급했다. 신학교, 신학원 등은 수가 많기 때문에 생략했음)

학 교 명	지 역	장서수	설립년
1 감리교신학대학	서울; 서대문	12,400권	1905년
2 고려신학대학	부산; 서구 압남동	12,382권	1946년
3 목원대학(대전캠퍼스)	대전; 목동	12,170권	1954년
4 삼육대학	성북구; 공릉동 (태릉)	13,900권	1906년
5 서울신학대학	서대문구; 충정로	8,100권	1911년
6 연세 신대+연세신원	서대문구; 신촌	7,500권	1917년
7 장로회신학대학	성동구; 광장동 (광나루)	14,200권	1901년
8 장로회총회신학대학	영등포구; 사당동	15,730권	1901년
9 한국신학대학	성북구; 수유동	13,918권	1940년

10	가톨릭신학대학	성북; 혜화동	2,800권	1947년
11	대전신학대학	광주;	24,300권	1962년

표 2. 아세아와 남태평양지역 신학대학 장서현황(1972말)  
(주로 큰학교만 추려서 기재하였음)

	신 학 대 학	국 가 명	장 서 수	설립년
1	Burma Div School	Burma	10,800 Vols BKS	1927년
2	Ebenezer Bible College	Philippine	9,000 Vols BKS	1928년
3	Fakultas theologia U.K.S.W.	Indonesia	9,500 Vols BKS	
4	Hindustan Bible Institute	India	11,000 Vols BKS	1952년
5	Hong Kong Bible College	Hong Kong	10,000 Vols BKS	
6	Lutheran theological Sem.	Hong Kong	25,000 Vols BKS	
7	Moore College	Australia	40,000 Vols BKS	1840년
8	Osaka Christian College	Japan	23,229 Vols BKS	1952년
9	Philippine Baptist theo Sem.	Philippine	11,200 Vols BKS	1952년
10	Taiwan Baptist theo. Sem.	Taiwan	10,285 Vols BKS	1952년
11	Tokyo Christian College	Japan	16,500 Vols BKS	1950년

표 3. 미국의 신학대학 장서 현황(1972)  
(대표적인 몇 학교만 선택했음)

	신 학 대 학	장 서 수	설립년
1	Yale Univ. Divinity School	200,000 Vols	1701년
2	Union Theological Seminary	180,000 Vols	1806년
3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	400,000 Vols	1809년
4	Souther Baptist theo. Sem.	260,000 Vols	
5	Andover Newton theo. Sem.	170,000 Vols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표1의 경우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2만권 넘는 학교가 없고 가톨릭의 2학교가 3만권에 가까운 장서는 주목할만하다. 우리나라의 1972년말 출판 통계를 보면 기독교 도서가 203종이나 1년 동안 나왔고, 12종별에서 4위되는 출판성적을 볼수 있었다. 신학대학중 역사 깊은 경우는 7~80십년의 년륜을 가졌으나 현하 72년 통계에 국립 중앙도서관의 1년 증가 도서수 28,399권도 목되는 형편이며, 더구나 종합대학의 경우는 비교도 안되고 있다(교대 317,365권, 경희, 연세, 이화, 동국, 성균, 건국, 숙명의 순서로 15만권에서 32만권에 달하고 있다).

가톨릭계는 후원하는 교회가 많고 대학의 수가 적은 원인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학교행정에서 도서비 책정에 많은 비용을 할당하는 점에 틀림없다고 본다.

국내의 신학대학은 교파와 신앙노선에 따라서 교역자(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때문에 군 소 신학교

까지 합하면 통계숫자도 구구한, 80개다 120개다 혹은 150개로 운운하고 있다 「도서의 수와 내용을 보아서 정비할 수 있는 기준」도 세워 볼 만 하다. 현재 운영 재정이 넉넉치는 못하지만 20여군데의 신학교육 기관은 비교적 발전의 면모가 보이고 있다.

표2의 경우 : 우리 신학계와 대동소이하나 Australia의 Moore College를 제외하고는 설립 역사도 짧고 교세도 한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가 여러모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영도할 포부와 기대도 크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표3은 신학교육이 앞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도 현저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설립년대가 1701에서 1810년에 까지는 20만권에서 40만권에 달하고, 1820~이후는 10만권~20만권 최하의 경우 구미의 신학교육기관은 5만권의 장서는 보통이다.

현재 50페이지상의 신학자들은 어떤 학문 계열보다도 먼저 선진국인 구미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데, 대략 신학교육계에서도 기관장 내지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수진인줄 알고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않이할 터인데 미진한 가운데 있음은 어떤 이유일까!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장 내지는 학장의 지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외부에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라 그런지 학교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도서비에 충당하고 없으면 할당된 도서비마저 전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대한 몇가지 이유를 생각하자면 ① 도서관 실권을 담당자서나 관장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와 ② 학교의 1년 예산편성중에 도서비 책정을 과학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주무 사서도 도서관 예산이 얼마나 배당되었는지 잘모르는 예가 일수다. ③ 도서비는 등록금에 일정한 기준액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과과정(연구)과 출판사항 및 독자의 요구에 따라서 수서해야 할 것이다.

Richard Heber는 이상적인 장서 수집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도서는 적어도 한번(1종의 책)에 최하 3권을 수서해야 되는데, 그 1권은 서고에 깊숙히 보관용으로 두고, 1권은 대출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1권은 참고도서로서 전시 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장서구성에는 특정이 있어야 한다. 신학중에도 특수분야 즉 그 교단신학의 노선에 따라서 내용도 다를 수 있다. 또 장도교라면 적어도 「칼빈전집 59권」이라던가 이것도 원문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여러 번역판도 비치해야 깊이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의 루터전집이라던지 성경교의 경우 웨슬레신학에 관한 저서

들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라면 교부신학등의 원전과 여러 번역판등이 갖추어 져야하며 비교종교학과 '엘링틱스'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종교서적이며 신학의 전문도서를 위주로 하여 그의 여러 학문의 문헌들이 구비돼야 할 것이다.

### 韓國教會 文獻 蒐集

한국교회의 역사는 비록 짧은것이나 놀라운 발전을 본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한 입증은 사료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앞으로 수세기를 두고 각종 문헌들은 교회의 내력을 말하여 줄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귀중한 자료들은 본인의 조사에 의하여 약 3000종이 출간된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를 성장하는 동안 교회의 수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가져온 고로 극히 한정된 자료만이 보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초기 교회의 박해시대와 일정시대, 그리고 6·25 동란으로 손실을 보았으며 선교사들의 손에의해, 국내에서 볼수없는 외국에 산재한 문헌은 다수를 점유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실정으로 보아 우리 시대에 약 50년이 넘는 자료의 보관 문제도 어려운줄 안다.

옛날부터 귀중본(Rara book; 희귀본)은 圖書의 入手가 어렵다고 하여 중국의 在机은 求書五難이라 표현하였다.

- ① 圖書를 買入할 힘이 없으며
- ② 힘(돈)이 있어도 冊이 없으면, 책과 돈이 있더라도 기회가 맞지않고
- ③ 冊은 書店이나 舊家에도 없으며
- ④ 冊이 있는 곳은 遠地이기 때문에 入手하지 못하며
- ⑤ 冊이 있어도 圖書의 眞僞를 鑑識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는 현재에, 과거에 없어진 것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눈앞에 파급되는 여러 문헌들 즉 보기 좋게 출판된 단행본이 아니라도 교회 多큐멘트, 전도지, 주보, 주일학교 교재등도 잘 보존하면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는 것이다.

각 교회의 회의록, 보고서 연회, 기관지 등 수집 보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암암리에 밖으로 흘러가는 밀매의 자료를 막고 외국에 흩어진 문헌을 찾아와야 할것이다. 이에는 국외에 나간 자료를 복사해오는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기구도 구상하여 한국교회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제공이 되도록 배전의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더욱이 국적있는 교육을 주창하는 오늘날 역사적인 배경의 자료는 필수적의 것이다.

#### IV. 神學書誌 事業의 時效

도서관 봉사에 있어서 도서 열람 대출도 중요하지만 참다운 봉사는 서지활동에 있다고 보겠다. 즉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 배열하여 짧은 시간안에 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찾게하려면 문헌목록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목록집이 많을 때는 때에 따라서 「목록·의 목록」까지 필요하기도 한다.

영국의 문호 카라일은 ‘도서목록이 없는 도서관은 회합신화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과 같이 별로 가치가 없다.(A Library is not worth anything, without cathalogue it is polyphemus without any eye in his head)’라고 한 바 있다.

일반학문 분야에는 수시종을 헤아리는 서지관계 출간이 있으나 신학관계는 겨우 필자의 미흡한 연구나마 “神學研究文獻”과 “韓國教會文獻分類法” 이외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개체별 신학도서관에는 교내 도서목록을 완성하고, 그의 분야별 목록, 신학도서 연합목록 등으로 학국교계의 신학교육기관에 골고루 비치하여 대학가의 상호대차나 자료교환등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점에서 신학도서관 협의회는 한 사업으로 연합 목록에 착수는 꼭 의의 있는 일이라 주목된다.

신학서지의 또 하나의 과제는 일반학문계의 서지작업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과, 앞으로 일반계에서 서지작업상 종교중에 기독교 분야는, 단일 신학을 연구한 사서가 없다면 신학계의 전문인에게 상의하여 분류배열하는 일이 있어야 원만히 서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 그 할례로서 “대한민국출판총목록” 65년도 것에 아울러서 ‘속죄론연구’가 일반 윤리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던지, 메랑톤의 ‘아우그스 신앙고백’이 종교에 분류 배열 된다던지 1968년도 총목록에는 심지어 기독교난에 보천교자료가 삽입되어 있으며, 1970년도 목록에는 필자가 연구한 ‘중세수도원제도사’가 어떻게 불교분야에 들어가 있는가 말이다. (신학분류에 관해서는 “한국교회 문헌분류법”참고를 바람) 아마도 이것들은 먼저 분류법의 불완전성도 있었고, 분류사서가 종교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흡함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학사서들이 많은 연구 활동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 V. 視聽覺資料와 圖書館俸仕

學習方法은 人智의 계발과 문화발전에 따라서 변화한다.

중세대학의 초기 윈(Wien)대학의 신학교수인 하우스엘바흐(Hauselbach)는 구약성서 중의 「이사야」서를

강의하는데 무려 22년이나 소요되던 때가 있는 반면에 오늘날이 자료의 다량에 따라서 정보활동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점차 기계화 되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학습의 효과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계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피교육자로 하여금 직관적이며, 구체적 교육을 통하여 본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얻도록 하는 발달된 교육방법에 쓰이는 도구들이다. 즉 교육방송, 영화 Film, 사진자료와 Silde, 녹음 Tape와 Disc Records, 지도와 지구의(Globes) TV. 인형극 자료 등 특히 교회교육에는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등 이해의 증진과 흥미교육에 입각한 시청각자료가 더욱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의 지도자는 역시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전문자로서 수강중이라도 각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문제와 제반사항을 신학대학에서 교육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조직이라던가 용판, 차트, 인형극 자료 등 손수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면 실비가 큰 일반대학 같이 시청각 교육센터가 따로 없는한 도서관의 영역에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 제2조에도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 기록, 시청각자료,...”로서 도서관 자료의 일부로서 시청각자료가 들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영력있는 설교가와 신학자가 많다. 차츰 교계의 원로들은 교회의 설교단을 물러나고, 학교의 강단을 떠나는 아쉬움이 있다. 그분들의 육성과 강의 내용을 담아서 두고두고 교실에서 강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는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담은 녹음테이프를 2만여 종이나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강의실에서 아주이용하고 있다.

정치하게 쌓아올린 세련된 학문과 노련한 교수법을 오래토록 보존하며 강의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교과 과정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적어도 대학강단에서의 「원강」 하면 영어계의 원강이던, 독일계나 불어계던지 「그 학자 그 학문」의 육성을 들으며 강의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 할것이다.

#### VI. 文獻學 講義의 必要性

Johnson은 「지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식에는 2종류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한 주제를 자신이 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제에 관한 정보(Information)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전자는 어떠한 주제의 배경을 형성해 주는 교육이며, 후자는 문헌에 관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문헌학이 이것을 보충해야 할것이다.

서양에는 도서관학이 오래전부터 교양과목으로 있고 국내에서도 교육대학에서는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부터 경희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정규과목에 편제

하고 있다. 이용자와 도서관의 업무진척을 보드레도 너무나 이용에 예비지식이 없어서 일이 어려움게 되는 수가 많고, 이용자도 쉽게 연구할 것을 많은 시간소모와 정력소비를 하는 때가 많은것이 일수이다. 서양의 경우는 국민학교때 벌써 자료 이용과 도서관출입의 습관을 익히고 있는데도 대학과정에서 「Bibliography」로 1과목이 들어 있음은 이용자와 도서관의 상호협력점이 나, 연구진척상 좋은 점이라 하겠다.

교육대학이 대학의 사명에 초등교육을 담당할 국민학교 교사 양성기관이라면, 신학교육은 대학의 사명에 한국교계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역자양성 즉 목회자와 신학자의 배출에 의의가 있는것으로, 교육대학이 국민학교 학생들을 위주하여 교육자를 양성한다면, 신학은 교회생활에서 불배 유치부에서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지도하며, 교회교육의 비중성을 보아서라도 문헌학의 설치가 필요하며, 세분화된 신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에는 더욱이 요청된다. 그리고 교역자는 설교준비를 위해 학자 못지않게 늘 책과 대하게 되는데 얼마전 한국에 다녀간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함」박사도 설교를 위해 5분야의 전문적인 문서관리가의 비서가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교회(13,447개)의 도서실 설립 육성이 촉구되며(현재로는 몇군데 안되지만), 교회도서실의 경우 실무자는 교육전도사요 당회나 사무실에 근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졸업하고 일터인 교회생활에 까지 직결되는 업무상 문헌학이 교과과정에 설치함이 한국교계의 교회교육이 일진보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 론

이상에서 몇가지점을 살피는 중에 신학대학 도서관의 현실과 당면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한 제언등이 포함된 줄 안다. 도서관업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

우리는 봉사라는 말이 잘못 전달된 감이 있으며, 봉사를 넘어서 도서관의 교수기능이라는 점을 일하는 사서들이나 기관장들은 인식하며, 자부하고 수행해 나가도록 협력해야 될 줄안다.

이점에 대하여 미국의 웰슨(Dr. Louis Wilson)박사는 말하기를 “대학도서관은 교육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분야로서 단지 정보자료로서 보다는 더욱 사회의 문화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가해주는 완전한 교육기능이라고 이야기하며 직접적 교수 기능과 간접적 교수 기능”으로 나누워서 상세히 설명해준 바 있다.

도서관은 “책으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최대한의 봉사로 도서관내의 모든 기구에 준비된 문헌 일체를 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므로, 탐구의 호기심과 동기유

발을 주야하며, 연구에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것이다.

이같은 증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힘없는 일선의 사서들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다. 이일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행정’가 내지는 경영자와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이 함께, 대학교육의 학습능를 및 교육계획 수립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협의되어야 한다.

하나의 예로서 미국에서는 이미 1937년에 이미 그의 실효를 거두었다.

미국대학협의회 기관지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

“College librarian looks at the college president”

(대학의 사서를 보러거든 그 대학의 총장을 보아라)

“College president look at the college library”

(대학 총장을 보러거든 그 대학 사서를 보라)

신학도서관 협의회는 다음의 몇가지 연합사업계획이 있다.

1. 신학도서관의 상호친목
2. 신학도서관의 관리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3.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자료 대차의 협력
4. 신학서기 활동
5. 도서관인의 자질향상
6. 도서관인이 지위향상
7.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8. 교회도서관의 육성지도
9.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10. 국내의 신학도서관 및 단체와의 유대강화

진정한 신학교육의 발전은 현재의 미진한 신학도서관의 실정에서 “운영의 과학화에 입각한 도서관의 혁신적 진흥”에서만 이루어 될것이며 이것에 대한 박차는 경영자(학장), 교수, 도서관의 조화있는 단합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Wilson Co, 1949)

TAP-ASIA Directory of Theological Institutions in Asia and the South Pacific 1972.

Thornton, John L. Select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Librarian ship (London: L.L.A, 1966)

金南碩 “大學教育을 위한 圖書館의 機能” 도협월보 5, 1971.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俸仕의 効果에 관한 研究. 1965.

安春根 藏書學.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전국신학교육기관 주소록. 1972.

최혜봉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 도협월보 12, 1971.

한완상 “대학교육개혁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도서관 9, 1972.

金昌宜 中世修道院制度史 景仁文化社 1970.

—, 神學研究文獻學 景仁文化社 1972.

—, “大學教育과 學生福祉” 神學指南 卷 1972.

—, 韓國教會文獻分類法, 성바오로출판사 1973.